



미 증시, FOMC 앞둔 대기심리에 혼조세 마감

미국 증시 리뷰

30 일(화) 미국 증시는 FOMC 결과 및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을 앞둔 대기 심리에 제한된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소비심리지수 개선, 구인건수 증가 등 경제지표 개선에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 위축되며 혼조세 마감 (다우 +0.35%, S&P500 -0.06%, 나스닥 -0.76%). 업종별로 금융(+1.2%), 에너지(+1%), 필수소비재(+0.6%) 강세, 부동산(-0.9%), IT(-0.7%), 통신(-0.7%)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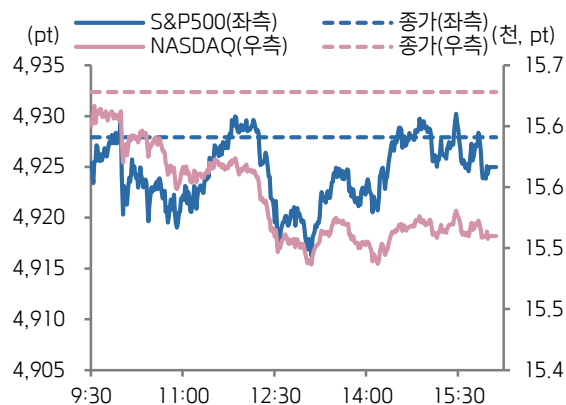
미국 1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114.8(예상 115.0, 전월 110.7)로 큰폭으로 개선. 인플레이션 안정, 고용시장 견고, 증시 호황과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높아진 것을 반영. 12월 JOLTs 채용공고 902.6만건(예상 875만건, 전월 879만건)으로 예상치와 전월치 모두 상회, 3개월만에 최고치. 반면, 자발적 퇴사는 340만건으로 3년 만에 최저치.

IMF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성장률과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며 전세계 경기의 경착륙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언급.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10월 전망치 대비 0.2%p 높은 3.1%, 미국은 기존 1.5%에서 2.1%로 상향 조정.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한 배경으로 예상보다 높은 미국의 경기 확장과 중국의 재정 부양책을 언급. 미국의 연착륙을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IMF는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서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높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언급.

유로존 4분기 GDP 성장률은 0.0% (예상 -0.1%, 3분기 -0.1%), 연간으로 0.5% 기록. 역성장을 기록한 3분기에서 반등하며 기술적 경기침체(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는 피했지만, 독일의 마이너스 성장이 유로존 경제 전반에 부담을 가중. 독일은 건설·기계·장비 부문이 크게 위축되며 4분기 -0.3%(3분기 0.0%)로 역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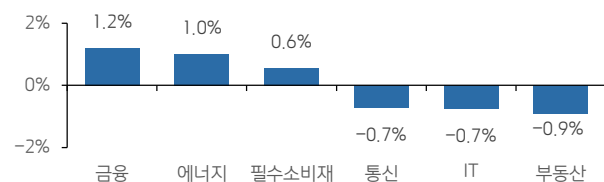
GM(+7.23%)은 이날 실적 발표에서 4분기 순이익이 YOY 5% 증가한 21억달러를 기록했지만 이는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 영업이익은 6주에 걸친 파업과 전기차 부문 손실로 YOY 54% 급감했다고 보고. 그럼에도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약 120~140억 달러(시장예상 108억달러)로 제시, 공급망 차질이 해소되면서 올해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BYD(-5.47%)는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판매량 세계 1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에 따른 마진악화로 인해 순이익이 290억~310억위안으로 시장 예상 315억위안을 하회하며 주가 급락, 전기차 수요부진 우려 확대.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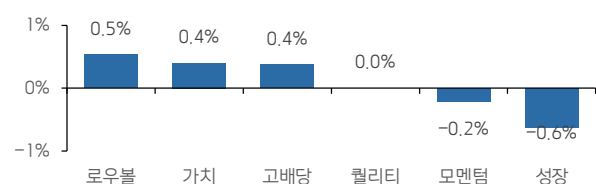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498.81	-0.07%	USD/KRW	1,329.50	-0.46%
코스피 200	337.48	-0.11%	달러 지수	103.49	+0.24%
코스닥	818.86	-0.03%	EUR/USD	1.08	+0.13%
코스닥 150	1,276.48	+0.43%	USD/CNH	7.19	+0.01%
S&P500	4,924.97	-0.06%	USD/JPY	147.60	+0.07%
NASDAQ	15,509.90	-0.76%	채권시장		
다우	38,467.31	+0.35%	국고채 3년	3.270	-3.4bp
VIX	13.34	-1.91%	국고채 10년	3.361	-8bp
러셀 2000	1,996.24	-0.76%	미국 국채 2년	4.293	-8.7bp
필라. 반도체	4,319.99	-1.56%	미국 국채 10년	4.118	-5.8bp
다우 운송	15,776.31	-1%	미국 국채 30년	4.371	-3.8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662.70	+0.5%	WTI	77.77	+1.29%
MSCI 전세계 지수	738.28	+0.61%	브렌트유	82.73	+0.4%
MSCI DM 지수	3,236.32	+0.62%	금	2054.3	+0.47%
MSCI EM 지수	990.18	+0.52%	은	23.29	+0.17%
MSCI 한국 ETF	59.91	-0.42%	구리	391.2	+0.8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37%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13%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34%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27.3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장중 1 월 FOMC 경계심리 유입세 심화 여부
2. MS, 알파벳의 시간외 주가 하락이 국내 관련주에 미치는 영향
3. UPS 주가 급락 vs 저 PBR 테마 등 상하방 요인이 혼재된 시클리컬 업종 주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결과 발표 예정인 1 월 FOMC 에서는 금리 동결이 유력한 가운데,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 주가 반응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 일단 지난 12 월 FOMC 결과를 반추해보면, 점도표 상 올해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을 9 월 5.1%에서 0.5bp 하향된 4.6%로 제시하면서, 연내 3 회 금리인하 시그널을 시장에 제공. 코어 PCE(2.6%→2.4%)에 변화를 줬다는 점이나, 성명서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둔화를 반기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도 시장이 해당 회의를 비둘기파 적으로 받아들였던 부분.

하지만 당시 기자회견과 관련해, 12 월 FOMC 종료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금융시장, 학계 관련자들 사이에서도 “왜 그가 생각보다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을까”와 같은 논쟁이 지속되기도 했음. 이후 뉴욕 연은 총재 등 파월 의장 제외한 여타 연준 인사들은 사태 수습성 발언을 하기도 했으나, 이때를 기점으로 시장은 연내 6 회 인하 기대감을 가져갔던 상황. 이를 고려했을 때, 이번 1 월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본인의 12 월 기자회견으로 인해 과도하게 형성된 금리인하 기대감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임(Fed Watch 상 연내 5~6 회 사이에서 컨센 변화 중)

다만, 주식시장도 “1 월 FOMC 가 12 월에 비해 덜 비둘기파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1 월 이후 주가와 금리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CME 선물 트레이딩 시장과는 달리, 증시에서는 3 월 인하 및 6 회 인하 기대감을 온전히 반영해오지 않았던 측면도 있음. 지난 12 월 FOMC 의사록에서 일부 위원들이 양적긴축(QT) 축소 논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다가 미국 중소형 은행권들의 유동성 우려가 재차 부각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이번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QT 축소 논의가 나올지 여부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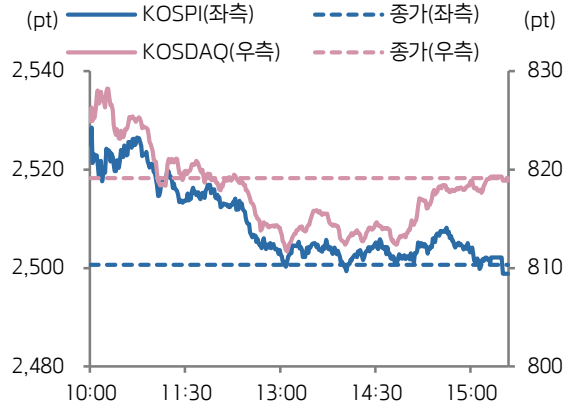
이처럼 1 월 FOMC 는 12 월처럼 증시 랠리의 동력을 제공할 소지는 낮으나, 이미 낮아진 기대감은 일정부분 기반영된 상태이기에 중립적인 결과로 소화할 것으로 보임. 또 12 월 JOLT 상 채용공고(903 만건, 컨센 870 만건)가 급증했다는 점도 이날 증시에 영향을 가했던 것처럼, FOMC 직후 예정된 1 월 비농업 고용(2 일), CPI(13 일), 파월의장 의회 증언(2월말~3월초) 등 사실상 연중 분기점인 3 월 FOMC 전까지 연준 정책을 둘러싼 기대감 변화는 번번할 전망이다(당사는 6 월 인하 시작 예상). 결국 이번 FOMC 가 증시에 부정적인 충격을 가할 정도의 매파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번 결과만 놓고서 대대적인 포지션 조정은 자제하는 것이 적절.

전일 국내 증시는 직전일 저 PBR 주들의 차익실현, 고 PBR 주들의 저가매수 등 저 PBR 테마를 둘러싼 일부 되돌림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중화권 증시 급락, 1 월 FOMC 경계심리 등으로 약보합 마감(코스피 -0.07%, 코스닥 -0.03%).

금일에도 1 월 FOMC 관망심리 속 애플(-1.9%) 등 미국 M7 실적 경계감에서 기인한 나스닥 약세 등으로 전반적인 지수는 정체된 주가 흐름을 보일 것이며, 그 안에서 장중 개별 업종 이슈를 반영해가면서 종목 장세를 보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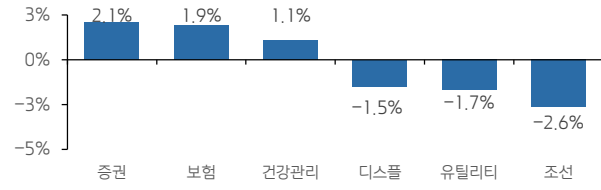
업종 관점에서는 반도체, AI 등 IT 업종과 경기 민감 업종의 주가 흐름에 주목할 필요.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MS(-0.3%)은 클라우드 사업 부문 호조로 컨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으나, 시간외에서 1% 내외 주가하락세를 연출 중. 알파벳(-1.3%)의 컨센 상회 실적에도, 광고 수익이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소식에 시간외에서 4% 내외 주가 급락세를 기록하는 등 전세계 대장주인 미국 M7 의 실적 이벤트가 순탄하지 못하게 출발했다는 점은 국내 증시에서 관련 주들의 수급 변동성을 확대시킬 전망. 또 저 PBR 테마가 잔존해 있긴 하지만, 전세계 경기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물류업체 UPS(-8.2%)가 부진한 가이드언스를 제시했다는 점은 국내 경기 민감 업종의 주가에도 부담될 수 있다고 판단.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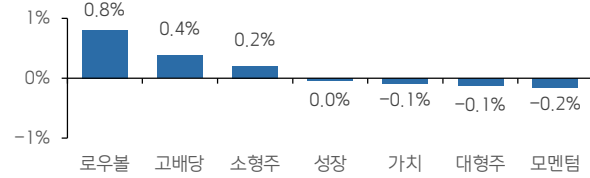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